

2021년 2월 5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산 속 강세 고용지표 개선 및 추가 부양책 기대, 경제 정상화 가능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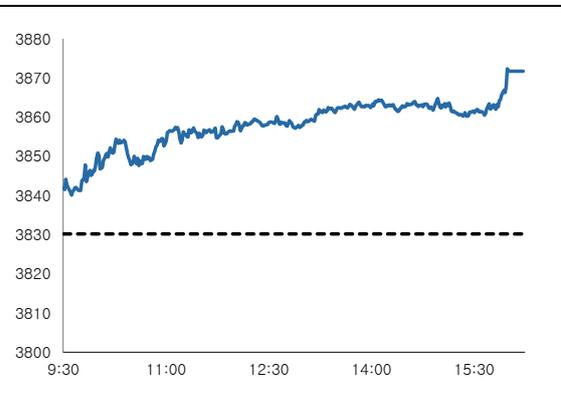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추가 부양책

미 증시는 개선된 고용지표 결과와 추가 부양책 하원 통과에 따른 빠른 진행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더불어 연준위원들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상승 요인. 대체로 경제 정상화 기대와 추가 부양책 등이 긍정적인 영향. 한편, 금융주, 소매 유통 업종 등이 상승 주도한 가운데 일부 대형 기술주는 매출 소하 과정을 보이는 등 차별화는 지속(다우 +1.08%, 나스닥 +1.23%, S&P500 +1.09%, 러셀 2000 +1.98%)

전일 미 증시 마감 후 미 하원은 1.9 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 시킴. 이로써 관련 법안은 상원으로 옮겨 갔으며 상원 예산위 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조정권을 발동해 민주당만으로도 추가 부양책 법안 가결이 가능.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 특히 '양당 합의'로 통과 되기를 원한다고 언급. 현재 민주당은 3월 14일 전에 통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당장이 아닌 3월 통과는 목표 하는 것은 공화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의회 통과 할 경우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향후 바이든 정책이 공화당 반대로 집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옐런 장관도 양당 합의를 언급 한 이유. 이러한 온건한 움직임으로 시장은 우호적인 영향

한편, 지표 개선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최근 미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확산. 오늘도 지난 1월 12일 기록 했던 고점에 근접. 특히 의회 예산처의 올해 증반 경제 정상화 전망, 화이자의 5월까지 2억개의 백신 공급, 추가 부양책 기대로 상승이 이어진 것. 시장은 작년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로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상승세는 좀더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나,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의 '지속성'을 언급하며 어느정도 용인한다고 언급해 왔기 때문에 국채금리 연중 고점에 근접한 영향은 제한.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수준 보다는 금리 상승 속도에 주목하고 있어 오늘처럼 완만한 움직임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087.55	-1.35	홍콩항셱	29,113.50	-0.66
KOSDAQ	964.58	-0.63	영국	6,503.72	-0.06
DOW	31,055.86	+1.08	독일	14,060.29	+0.91
NASDAQ	13,777.74	+1.23	프랑스	5,608.54	+0.82
S&P 500	3,871.74	+1.09	스페인	8,122.60	+1.37
상하이종합	3,501.86	-0.44	그리스	760.78	-0.46
일본	28,341.95	-1.06	이탈리아	22,900.55	+1.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상승세 지속, 반도체 업종도 상승

페이팔(+7.36%)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 후 상승 했다. 마스터카드(+2.41%), 비자(+3.92%)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이베이(+5.31%)는 예상을 상회한 수익과 배당금을 13% 늘리고 4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캐나다 구스(+22.38%)는 온라인 및 중국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예상을 크게 상회한 매출을 발표 후 급등 했다. KLA(+2.77%)도 양호한 실적과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으며 AMAT(+3.37%), 램 리서치(+3.01%) 등 반도체 장비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마이크론(+2.71%) 등도 전일 하락을 뒤로 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6% 상승했다.

애플(+2.58%)은 애플카 이슈가 지속되며 상승했다. JP모건(+2.30%), BOA(+2.91%) 등 금융주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L브랜드(+9.35%)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했다. 갭(+3.70%), TJX(+2.77%) 등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쉘컴(-8.83%)은 실망스러운 매출 결과와 올해 상반기 더 많은 공급망 제약에 대한 경고 여파로 급락 했다. 쿠팡(-4.69%)도 동반 하락 했다. 투기적 거래 종목들에 대한 조사 소식등으로 게임스탑(-42.11%), AMC 엔터(-20.96%)등은 급락했다. MS(-0.41%), 알파벳(-0.25%)은 물론 테슬라(-0.55%) 등은 차익 매물이 지속되며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5%	대형 가치주 ETF(IVE)	+1.32%
에너지섹터 ETF(OIH)	+2.19%	중형 가치주 ETF(IWS)	+1.26%
소매업체 ETF(XRT)	-0.34%	-0.34% ETF(IWN)	+2.06%
금융섹터 ETF(XLF)	+2.22%	대형 성장주 ETF(VUG)	+1.18%
기술섹터 ETF(XLK)	+1.60%	중형 성장주 ETF(IWP)	+1.6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1%	소형 성장주 ETF(IWO)	+2.05%
인터넷업체 ETF(FDN)	+1.91%	배당주 ETF(DVY)	+1.11%
리츠업체 ETF(XLRE)	+0.56%	신중국 고배당 ETF(DEM)	+0.26%
주택건설업체 ETF(XHB)	+1.26%	신중국 저변동성 ETF(EEMV)	-0.21%
바이오섹터 ETF(IBB)	+1.37%	미국 국채 ETF(IEF)	-0.03%
헬스케어 ETF(XLV)	-0.42%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07%
반도체 ETF(SMH)	+1.16%	Long/short ETF(BTAL)	-0.53%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18.16	+1.08%	+3.66%	+3.15%
소재	454.33	-0.54%	+0.14%	-5.40%
산업재	748.06	+1.10%	+2.15%	-0.96%
경기소비재	1,373.38	+0.96%	+2.85%	+5.22%
필수소비재	669.95	+0.74%	-0.45%	-2.67%
헬스케어	1,344.26	+0.36%	-0.58%	-0.01%
금융	512.25	+2.28%	+4.35%	+1.08%
IT	2,385.11	+1.55%	+2.59%	+7.19%
커뮤니케이션	232.22	+0.59%	+4.24%	+6.66%
유틸리티	321.42	+0.72%	+1.15%	+0.91%
부동산	235.41	+0.50%	+1.76%	+7.4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수출 대형 종목군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2%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4%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0.2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하고 쉘컴이 장 마감 후 급락하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중국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로 장중 낙폭을 확대하자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친 차익 매물 출회도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줬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전일 하락했던 반도체 업종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점, 고용지표 호전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점 등은 투자 심리 개선 기대를 높여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물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강세 요인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부분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우려가 높았던 미국 소비 둔화는 이날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한 소매 유통업체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감안하면 개선 될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미국 소비가 개선 되면 이 또한 한국 수출 증가 기대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전일 낙폭이 컸던 수출 대형주 종목군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 개선 지속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81.2 만건)은 물론 예상(83.5 만건)을 하회한 77.9 만건을 기록해 3 주 연속 감소했다. 4 주 평균 수치도 84 만 9,500 건에서 84 만 8,250 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 만 3 천건 감소한 459 만 2 천 건을 기록했다.

1 월 미국 대량 해고 건수는 전월(7 만 7,030 건) 보다 증가한 7 만 9,552 건을 기록했다.

4 분기 미국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 연율 5.1% 증가는 물론 예상치인 연율 2.8% 감소를 하회한 전분기 대비 연율 4.8% 감소로 발표되었다. 비용은 전분기 연율 7.0% 감소는 물론 예상치인 연율 3.5% 증가를 상회한 전분기 대비 연율 6.8% 상승으로 발표됐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국채금리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산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 기대, 경제 정상화 가능성 부각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OPEC+ 국가들이 감산 이행률이 101%를 기록하는 등 감산 기조 지속 의지가 높다는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일 ADP 민간 고용보고서 및 ISM 서비스업지수가 크게 개선되자 미국의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진 반면, 유로존은 경제 봉쇄로 인한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격차가 확대된 점도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파운드화는 BOE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0.3% 약세를 보였고 신흥국 환율도 약세였다.

국채금리는 전일에 이어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어 다음날 있을 미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연중 고점에 근접하자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을 보이다 장 마감 앞두고 소폭 하락 했다.

금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및 달러화 강세로 2.4% 하락해 1,800 달러를 하회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 따른 매물과 경제 정상화 기대에 따른 매수세가 충돌하며 보험권 혼조세를 보였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달러 강세로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일부 품목만이 상승한 혼조세로 마감 했다. 한편, 미 농무부는 옥수수와 대두가 강한 수요로 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 했으며, 브라질에 내리는 비는 대두 수확을 늦출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01%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6.23	+0.97	+7.43	Dollar Index	91.519	+0.38	+1.18
브렌트유	58.84	+0.65	+6.79	EUR/USD	1.1964	-0.60	-1.30
금	1,791.20	-2.39	-2.72	USD/JPY	105.54	+0.49	+1.25
은	26.234	-2.44	+1.20	GBP/USD	1.3673	+0.19	-0.35
알루미늄	1,993.50	+1.01	+0.45	USD/CHF	0.9042	+0.57	+1.73
전기동	7,823.00	-0.25	-0.64	AUD/USD	0.7601	-0.22	-1.07
아연	2,627.00	+0.46	+1.33	USD/CAD	1.2824	+0.30	-0.05
옥수수	550.00	-0.36	+2.90	USD/BRL	5.432	+1.00	-0.16
밀	637.50	-1.66	-1.47	USD/CNH	6.4724	+0.20	-0.03
대두	1,372.50	+0.09	+1.42	USD/KRW	1118.50	+0.32	-0.10
커피	124.05	+0.08	+0.04	USD/KRW NDF1M	1120.21	+0.59	+0.6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36	-0.16	+9.09	스페인	0.121	-0.40	+4.90
한국	1.790	+2.30	+2.50	포르투갈	0.053	0.00	+3.80
일본	0.061	+0.30	+2.10	그리스	0.749	+11.40	+7.30
독일	-0.454	+1.00	+8.50	이탈리아	0.544	-4.10	-9.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